

N 홍현준  
A 1986.12.26  
P 010-5368-0707  
E ghdtl123@daum.net

HONG  
heyun-jun

Web designer



A 부산 사하구 윤공단로 23 - 5  
W PORTFOLIO  
<https://ghdtl123.github.io/heyun-junPortfolio/>  
E 교육사항  
프론트엔드 디자인  
(웹 디자인 & 웹 퍼블리싱)  
2020.09 ~ 2021.02

### My life

2003.02 ~ 2005.02

동아 공업 고등학교  
컴퓨터 응용 기계학과 (졸업)

2006.11 ~ 2013.07

육군 부사관 기갑 병과 (장기복무 만기 전역)  
전차 운용, 사단 대표 K6화기 교관

2009.02 ~ 2009.06

한림성심대학 웹디자인과 (중퇴)  
군 복무 중 야간대학 진학 (장기복무 확정으로 인해 중퇴)

2014.01 ~ 2016.12

에스텍 베스트 (계약만료)  
보안 / 안전 요원 (현장관리, 물류차량 입출 시스템 운용)

2017.02 ~ 2020.06

동은, 기산단조 (경영악화)  
현장 생산직 (기계, 중장비 운용)

2020.09 ~ 2021.02

웹디자인 교육과정 이수

### Field of interest

Web design  
/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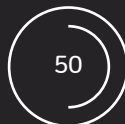


Graphic  
design



### Skills

MS  
Office



Adobe  
PS/AI/XD



HTML  
CSS



JQuery



## Growth process

### 책임의식이 있어야 성과도 따라온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직업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저에게 책임감이라는 마인드를 심어 주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직장 동료를 위한 책임의식은 군 생활뿐만 아닌 전역 후의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군 생활 중 여러 사건, 사고와 힘든 임무수행, 각종훈련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그 단체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저의 책임의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 Personality

### 체크! 체크! 확인! 확인!

업무 수행에 있어 꼼꼼함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꼼꼼한 성격은 저의 강점입니다. 디자인의 퀄리티적인 부분과 HTML 코딩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함이 처음 접하는 업무에서는 다소 속도가 느리게 될 수 있었기에 꾸준한 연습과 개인개발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 Activity

### 입은 듣기 위해, 귀는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입은 들은 후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나의 말과 타인의 말을 듣고 말하기 위해 귀가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사회 경험은 자만심과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저의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을 덕으로 만들기 위해 저의 유연한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새로 접하는 업무에 있어 어느 위치에서든 적응하고 배워 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웹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중 두 개는 기획부터 내용 설계 디자인 및 퍼블리싱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제작하였습니다. 코카콜라 미니 프로젝트는 아이덴티티 리뉴얼 제작을 통해 각종 편집물의 제작을 할 수 있었고 처음 진행하는 기획이어서인지 웹화면의 구성과 콘텐츠 정리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기획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고 퍼블리싱은 그것대로 요소와 명령어의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리스테인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 디자인 또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정리하여 간결하고 필요한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결과물들을 보며 스스로 원하는 저작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Growth process

### 마지막, 누구보다 더, 더 낮은 곳부터 이룰 수 있을 때 까지

대학 웹디자인 학과에 진학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장기근무가 확정 되며 꿈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제마지막 마침표가 아닌 마지막 쉼표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섰습니다. 웹사이트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실용적인 사이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용성 보다는 디자인의 가치관이나 추상적인 사상들을 노출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사이트라는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기본 의미가 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다른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개성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웹디자인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누구보다 더, 더 낮은 곳부터 이룰 수 있을 때 까지"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작으로써 웹디자이너로서의 모든 열정과 실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